다자이후 전시관-고대 다자이후의 증거와 현재까지 계속되는 발견

다자이후 전시관은 7세기부터 현재의 발굴 조사에 이르기까지 다자이후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다자이후가 일본의 역사, 문화, 교육, 종교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전시관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자이후 정청을 자세히 묘사한 입체 모형을 통해 다자이후의 본래 모습을 배워보고, 수십 년에 걸친 발굴 전시를 돌아보거나 발굴된 귀와(악귀를 퇴치하기 위해 무시무시한 요괴의 얼굴을 장식한 지붕 기와)를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함에 따라 일본의 새로운 시대인 레이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연호 '레이와'의 유래는 730년에 다자이후의 매화 나무 아래에서 열린 연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스토리를 확인하시려면 꼭 전시관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시관은 다자이후 정청 터 입구 주변에 있습니다. 압도적인 넓이를 자랑하는 고대 다자이후를 찾아가기 앞서 지역의 역사와 고대 다자이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